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부부 합동 결혼식 개최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인 '제8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부부 10쌍을 선정해 합동결혼식을 실시했다. 손태승(가운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 10쌍의 다문화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24기 해외 교환장학생 35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재들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 함양 및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교환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교환학생 장학 사업이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삼성생명, 태국서 '맹그로브 식목 봉사활동' 진행
삼성생명은 직원 30명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태국 팻차부리 지역을 방문해 맹그로브 식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삼성생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인 '그린 글로벌 프로젝트(Green Global Project)'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12회째를 맞은 그린 글로벌 프로젝트에 그동안 참여한 직원 수는 총 687명에 이르고 팻차부리 지역에 3만1000여그루의 맹그로브 묘목을 심었다. /삼성생명



오비맥주, 환경재단과 '미래 물 지키기 환경캠프' 열어
오비맥주는 지난 12일 환경재단과 함께 '미래 물 지키기 환경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역아동센터 개선사업인 '해피 라이브리'와 연계해 해당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 총 50여명을 환경캠프에 초대해 퀴즈대회와 토론수업 등 맞춤형 활동으로 이뤄졌다. /오비맥주

인사

◆특허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재우
◆EBS ◇ 부장 승진 △마케팅기획부장 김철범 △콘텐츠관리부장 오정호

부음

▲ 강대석씨 별세, 최점석(전주완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7일 오전, 장지 전

주공원묘원, 063-285-1009
▲ 문식 씨 별세, 문석훈(이루다금샘 대표)·종훈(디오션리조트 홍보기획팀장)·훈미(최상위 에듀 부원장)·훈경(광주 효광중 교사) 씨 부친상, 양진형(한국석유유통협회 전무) 씨 장인상 =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만평장례식장 202호, 17일 오전 9시, 062-611-0000
▲ 감윤상씨 별세, 감명국(시사저널 취재1팀장)·감혜진(투비아이에스컨설팅 부장)씨 부친상, 김경숙·김미정씨 시부상, 주진호(옥타솔루션 이사)씨 장인상 = 14일 오전 6시,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070-4710-1826

암울한 2019년 현실창업지수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최근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이에 따라 30~50대 비임금 근로자 고용이 위축됐다.

연령별 고용률 또한 2010년 1~5월 평균 기준으로 30대, 40대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2%p, 0.6%p 감소했다. 50대에서의 고용률 상승세가 멈추는 등 중년층 고용도 악화됐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면서 이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개인 창업기업은 8만4707곳이었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은 4월 기준 1만 7865곳으로 2월 1만2581곳보다 5000여 곳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월 기준 2만 874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40대는 2월 2만3305명에서 5400여명 이상 늘어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다. 4월 기준 50대 2만5148명, 30대 2만 4328명, 60세 이상 1만3624명, 30세 미만 1만1824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창업인구의 증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통계다. 바로 고용과 상관관계의 창업지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전체 경기지표나 고용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85만8000명이었다. 그런데 6월은 417만여명으로 1월 대비 32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월 161만4000명에서 6월 153만6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창업을 독려하는 소상공인지원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지원을

통해 창업을 독려하는 만큼 폐업도 증가하는 제로섬 게임법칙이 자금의 창업 시장이 문제라 하겠다.

고용이 없는 창업이 반듯이 경기상황적 문제만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직접매출보다 O2O서비스를 활용한 운영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을 줄이는 운영형태로의 변화도 당연히 시대적 배경이다.

하지만 매출대비 수익성 하락에 따른 인건비 절감의 목적이 비고용형태의 운영에 더 영향을 준다.

창업은 지속적 수익을 기반으로한 재투자형 사업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성공은 한달 30일은 기준으로 3일 매출(임대료), 5일 매출(인건비), 2일 매출(판관비), 1일 매출(원부재료비), 8일 매출(수익금)이 선행돼야 적절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창업을 위한 철저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KT, 경북 의성군에 IT 특화지역 조성

경상북도, 안동시와 손 잡고 AI 아이디어파크 등 공동추진
홈 IoT 등 ICT 솔루션 지원

KT는 15일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청사에서 경상북도, 의성군과 '이웃 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북형 IT특화지역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3개 기관은 K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 창업·주거·교육 공간에 청년 친화적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노마드 청년을 유치해 저출생·고령화로 농촌 소멸위기와 IT 기술을 활용해 농촌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KT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 행복누리관(가칭)내 AI 아이디어파크 조성 ▲ 5G 네트워크 기반의 청년 IT창업 및 주거공간 조성 ▲ I-함께 쉽터 조성 ▲ 미래 ICT기술 체험 및 코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부터), KT 홍보실장 윤종진 부사장, 김주수 의성군수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KT는 연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의성군 안계면 청년주거공간에 기가지니를 비롯한 홈IoT 등 ICT 솔루션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오픈 공간인 '청년교차방'에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

고 목에 걸 수 있는 카메라 'FIT 360(핏 360)'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5G 네트워크 및 공공 와이파이, AI파크 조성, 지역 아동 대상 드론·로봇·코딩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예보, 초복맞아 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행사

어르신 장애인 등 1000여명 참석
임직원 30여명 배식·설거지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초복을 맞아 수원 버드내노인복지관, 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우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계탕 나눔 배식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예보 임직원 30여명은 배식 및 설거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음식을 직접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초복을 맞아 노인복지관 등에서 삼계탕 나눔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 참여한 위성백 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등 공사 임직원과 수원 버드내노인복지관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보 관계자는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